

1996년 11월 25일 월요일

□ 각 선본 선거공약 진단

한총련평가·학부제, 공약의 쟁점

등록금, 교육여건등 실질적 부분 소홀하다는 비판도

서울 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장 및 제10대 총여학생회장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선본본부에는 다양한 선거공약을 무기로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박정윤(생물·93)-김영필(경제·93)후보(이하 박-김 후보)와 송치욱(정의·91)-허경태(물리·90)후보(이하 송-허 후보)가 각각 출마표를 던졌으며 총여학생회장 선거에 조영주(수학·94)-강근정(지리·94)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8월 '한총련 사태' 이후 조성된 불안정국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한총련 사태에 대한 평가'가 올해 학생회 선거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부제가 실시될 학생회의 조직개편의 불가피성과 함께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육권 보장에 대한 우려때문에 올해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매년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학생회 혁신문제에도 각 후보측이



다양한 사업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선 한총련 사태평가에 있어서 양 후보측이 뚜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송-허 후보측은 '한총련을 한국 학생운동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이의 원인을 '한총련의 존재 근거를 오직 통일운동에만 두는 편협적 시각과 한총련 내의 주류인 주사파의 일방통행식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김 후보측은 '한총련 사태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나 학생대중과 괴리된데 대해서 학생들이 이번 선거에서

측은 예비역 학생들이 복학후 받은 불이익에 대한 대책마련을 역설했다.

현 상황을 학생회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각 후보측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회를 조직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박-김 후보측은 학생회를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구현하겠다는 구호아래 학생회 간부들이 직접 학생들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도서관과 강의실 방문을 수시로 하며 마당식 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송-허 후보측도 학생들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과 밀착된 만남을 이루기 위해 여론조사팀과 영상매체사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문화센터와 자치도서관 건립뿐만 아니라 제2대학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크게 오를 등록금 문제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자못 궁금하다.



올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총여학생회장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지난 10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는 유운이 사법대 학생회장(미교 4)을 중선관위장으로 호선했고 현재 체대를 제외한 각 단대 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가 각 1인씩 추천(문리대 1인 실무자 포함)해 총 13인으로 중선관위가 구성되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은 유운이 선관위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중선관위장으로 선출된 소감과 각

인터뷰

유운이 선관위원장

선거무관심, 정책대결로 극복하겠다

오는 11월 29일 치러지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가 시작되었지만 학우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받는 학생회를 건설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중선관위가 무분별하게 선거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탈피해 새로운 학생회 선거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겠다.

—올해 선거가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선거를 정책대결로 유도 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세나 정책토론회를 해도 학우들의 참여가 낮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후보자가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자료홍수에 빠졌는데 공동자료집으로 후보 간 정책을 쉽게 비교 분석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공영제와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본위가 총학생회 후보 자료집에 2백만원, 총여 후보자료집에 50만원씩 총 2백 5십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작년 선거의 경우 50%를 약간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를 우려해 올해 중선관위는 선거시행계획에 투표일 후보활동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작년까지는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들의 활동을 일체 금지시켰는데 올해는 각 후보자가 유세를 제외한 투표를 호소하는 활동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제한 사항은 중선관위가 정하고 선관위원이 반드시 동행한다. 이를 중선관위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바랄다.

(구영준 기자)

□ 총(여)학생회선거 시행세칙

투표참여 위해 투표일 후보활동 허용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가 한창이다. 벽에 붙은 포스터, 지나가면 나누어주는 유인물, 여기저기서 아수라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운동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선거시행세칙과 불미됨에 의해 이루어진다.

올해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선거 시행세칙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28, 29일에는 교문 중앙대자보와 중앙도서관 앞에서의 피켓팅과 구호만 가능하다.

또한 작년과는 달리 방송국(VOU)과의 협의로 라디오 유세와 함께 정책토론회가 녹화방송되며 투표일 당일에는 정후보는 정후보들끼리 부후보들은 부후보들끼리 강의실을 돌며 투표참여를 호소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투표일 후보활동 세칙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한 조항이라고 밝혔으나 후보의 얼굴을 보이는 것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의사표현의 하나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비방 등 민중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선관위의 회의를 통해 경고하게 되며 3차 경고때에는 제2/3의 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28, 29일 투표일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선거가 연기되며 스코치율이 전체 +, -1%이상이고 오차율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때 △낙선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될 때는 재선거가 실시된다.

(박기람 기자)

서울캠퍼스 29대 총학생회·11대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 후보

“강요되지 않을 자신감, 길들여진 일상에 침을 뱉어라”

송치욱
(정의·91)

71년 부산 출생
90년 부산 해동고등학교 졸업
91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92년 군입대
95년 정의와 학회 자유정신 활동
96년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역임
29대 총학생회 정학생회장 임 후보

허경태
(물리·90)

71년 부산 출생
90년 마산 중앙고등학교 졸업
90년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입학
91년 노래여울 회장 역임
92년 군입대
96년 13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역임
29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임 후보

간헐 내 삶의 창을 열어 민중의 하늘에서 내일을 본다

박정윤
(생물·93)

74년 서울 출생
93년 선덕고등학교 졸업
93년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입학
94년 생물학과 부학생회장 역임
95년 생물학과 학생회장 역임
96년 문리대 대학 학생회장 역임
29대 총학생회장 정학생회장 임 후보

김영필
(경제·93)

75년 인천 출생
93년 서인천고등학교 졸업
93년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95년 경제학과 학생회장 역임
96년 정경대학 부학생회장 역임
29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임 후보

당신과 나의 삶에서 시작되는 여성승리의 역사

조영주
(수학·94)

75년 부산 출생
94년 인천 송덕고 졸업
94년 경희대 수학과 입학
1학년 여학생 대표
95년 수학과 여학생회장 역임
96년 문리대 대학 여학생회장 역임
11대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임 후보

강근정
(지리·94)

75년 서울 출생
94년 예일고 졸업
경희대 지리학과(야) 입학
95년 숭의여자대학 여학생회장 역임
96년 문리대 대학 여학생회 기획부장 역임
11대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 임 후보

◇공약◇

1. 한총련 개혁
△한총련의 패권적인 운영과 노선 반대 △한총련 개혁을 위해 이에 동의하는 연대운동에 참여.
2. 소통과 생명의 네트워크, 학생회의 신기지 창출
△관습적, 계층적 학생회 거부 △현재의 집행국체제와 운영방식을 바꾸고 학우와 학생회의 중간적이며 지원적인 공간(지원센터) 확장 △여론조사팀 구성으

로 이전들과 비판적인 여론 조사, 공개 △월간 <지구경회> 혁신 △'생상대체사업단' 구성으로 다각적인 학우들과의 접촉 강화 △자치도서관 건설 △멀티미디어 정보문화센터 설치 △강요된 교육의 틀을 벗어난 제2대학 건설
3. 학부제를 넘어서
△학부제 논의 대책위가 아닌 만들어 가는 대책위 구성 △대학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대학이기 위해 학 페스티벌들을 기획할 수 있는 집행기구 설치

◇공약◇

1.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도약하는 학생회
△1일꾼 1강의실 △더 큰 토론마당 △사랑실천재단, 후원회 설립 △고등학교 생 예비대학 △1과마다 1소녀소녀 가장 돕기 △월요일, 금요일 직접 만나기
2.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경희대민들
△학부제 공동대책위원회 신설 △학부학생회 준비 △연구와 강의 중심의

교수업적평가제
3. 마당 깊은 경희대
△수요일 '젊은 영화제' 개최 △목요일 '목요 문화제' 개최
4.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가는 학생운동
△지역주민들 생활에서 항상 함께하기 △용산만민구지 되찾기 운동 전개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민중이 주인으로 나서는 대안의 '97년 대통령 선거준비

◇공약◇

1. 누구도 '성'으로부터 억압받지않는 대학과 사회건설
△수요일 '젊은 영화제' 개최 △목요일 '목요 문화제' 개최
2. 여성으로 살기위한 적극적인 준비, 사회 여성과의 힘있는 연대
△여성단체와 연대, 투쟁적극참여 △

기활학교와 하루기활 활성화 △총여학생회와 기활에 참여하는 단대를 중심으로 기활소모임 건설 △취업학교진행
3. 3천5백의 진정한 대중조직으로 9천에게 영향력을 갖는 총여학생회
△여학생회 혁신운동 전개 △여학생회 발전을 위한 모임 마련 △여학생일꾼 교양사업 △여학생휴게실 물품구비 △여성문화제 진행

언어로! 세계로! 개 12월 2일 강

세계화!! 말이 술술 통합니다.

친구가 되지 않으실래요.

저는 STEVE라고 해요. 청문에서 E.F.L. COURSE를 가르치고 있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때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이제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남자들은 DANNY, 알론도 마운도 고은 ANNA, 한 장난이 심한 JAMES, 나이만큼 마음도 어른 JOSEPH 등... 첫 수업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이제 서로 농담도 해가며 교학친구처럼 속삭이는 애기도 하는 저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곳 청문에는 저처럼 고향을 떠나고 있는 제 동료가 많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지 않으실래요? 공부도 함께하고 시간이면 커피도 마시고, 저를 고향애기도 해드릴게요.

●영어회화: EFL코스, SIDE BY SIDE, A-STREAMLINE, FREE TALK
●TOEIC종합: TOEIC L/C/R/C 기출문제, A·TOEFL, TOEFL종합, VOCABULARY, AFRON, AMERICAN HEARING, SCREEN ENGLISH, 통역대행, 영자신문, 영어수업, GRE/GMAT, TOEFL, TIME, 대학입학영어, 일어초급, 일어중·고급, 일어능력시험, NIK정리, 일본인회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주일특강

●매월 TOEIC, TOEFL 모의TEST 실시

정문외국어학원
738-5151(대) 738-5152(주) 738-5153(주)

21세기 주역을 위한...

외국어 교육 1번지!

매월 1일 개강
수시 등록·수강

YBM 시사영어사 어학 학원
(본원)

영어·일어·중국어

수강과목

- 엘리트 종합 TOEIC
- TOEFL L.C.
- 미국인회화
- 안박사 TOEIC
- AFKN 청취
- 인터넷 & 스크린영어
- TOEIC L.C.
- VOCABULARY
- 영어순회
- TOEIC R.C.
- 영작문연구초급영어
- 일본어 문법·독해
- TOEIC 실전총정리
- 영어실용기초
- 일본인 일어회화
- 아카데미 TOEFL
- Side By Side회화
- 중국어 문법·회화
- 신경향 TOEFL
- Interchange 회화
- 주말 특별 과정

미국인 회화과정(YEC)

YBM English Conversation

- 정원제 실시
- Level Test 수 반편성
- 강사진 전원 Native Speakers
- 본 학원에서 개발한 최신교재 사용

대표전화 : 276-0509

탐골공원(종로2가) 맞은편 YBM/시사영어사 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유럽 배낭 여행의 기회를 드립니다!

만약 별명이 마당발이거나
체력만큼은 A+라고 자부한다면
지금, 도전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 취업 지도과나
동양카드(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및 참가신청
동양카드(주) TEL 3468-1465~7

동양카드(주)
operating under license from American Express Cards